

“복지·안전망 등 곡성형 모델 정착... 군민 삶 개선 보람”



조상래 곡성군수 취임 1년

“지난 1년은 군민의 삶 속에서 변화의 씨앗을 함께 심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곡성의 새로운 미래를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가 21일 민선8기 출범 1주년 소감을 밝혔다.

곡성군은 ‘군민 중심’이라는 기조 아래, 지역의 숙원과 생활 현안에 집중하며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쌓아왔다. 동시에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미래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곡성의 다음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대 핵심성과다. 조군수는 “교통복지 확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지역경제 회복, 농업 경쟁력 제고, 소통행정,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관광산업 도약, 복지 안전망 강화, 문화유산 보존, 출산율 반등 등 곡성군의 변화는 군민의 일상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호도택시 운행 조건을 700m에서 500m로 완

교통복지·의료서비스 강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등 10대 성과 눈길 지역상품권 발행 100% 증액·민생활력지원금 지급 등 지역경제 숨통

화하고 7개 면 10개 마을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65년 만에 소아과 상시 진료가 시작돼 전체 소아청소년의 66%가 이용하는 등 의료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

심장상품권 발행액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220억 원에 달했고,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바로폰’과 ‘유난히 좋은 날’을 통한 현장 소통,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와 스마트온실 조성 등 스마트농업 도약, 생활 인구 유입 확대, 마을 주치의 제도와 스마트 안전망 구축, 태안사 적인선사탑의 국보 승격, 출산을 반등 등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65년간 소아과가 없었던 곡성에 상시 진료가 가능해진 것도 군민과 곡성을 사랑하는 분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시즌2’ 캠페인을 펼친 결과, 2억5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진료 공간과 의료장비 확충, 전문의 확보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진료가 시작했다.

정주 여건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곡성을 공공임대주택 120세대가 지난해 말 입주를 마쳤고, 청년 하우징타운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도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과 특화작목 육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총 8710㎡ 규모의 스마트 온실이 준공되고 6명의 미래 농업인이 입주했으며, 창고형 수직농장을 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베리 생산량은 280톤, 매출은 72억 원에 이르며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았고, 고품질 멜론 출하량도 2021년 1,800톤에서 2024년

2980톤으로 66%가 증가했다.

문화관광산업도 새 전기를 맞았다. 곡성세계장미축제에는 25만 명이 다녀가 186억 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올렸고, 별론 페스티벌, 어린이 물놀이장 임시개장 등 사계절 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기획자 양성 15명, 매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이용자 수 총 35,950명에 달하는 곡성 어린이도서관 등 일상 속 문화 참여 기회도 확대됐다.

복지와 안전망에서는 곡성형 모델이 속속 자리 잡고 있다. 전 군민 버스 무료화를 위한 제도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호도택시 운행 조건 완화로 맞춤형 교통 복지를 실현했다.

조상래 군수는 “이제 곡성군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군민과 함께 새로운 곡성의 미래비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곡성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린 5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전남은 지금 ‘축제의 계절’

숯불향 가득 ‘광양 불고기’ 가을 입맛 유혹

24~26일 전통숯불구이축제

‘제21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 주최의 이번 축제는 ‘숯불 속에 피어나는 맛과 그리움의 향연’을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축제 첫날에는 신명나는 농악 한마당으로 막을 올리고, 광양 원님 행차 재현 퍼레이드, 외줄타기 공연, 광양숯불문화 기획무대 ‘미디어 대북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한 개막식과 함께 불꽃놀이와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서막을 장식한다.

둘째 날에는 광양시청년가요제, 지역 예술공연단 및 광양시합창단의 공연, 지역 예술인의 밤이 잇따라 열리고, 영호남유소년 생활체육씨름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다문화 페스티벌, 타

악 페스티벌, ‘포에버윈드오케스트라’ 공연, 광양시립국악단 공연 등이 축제 무대를 채우며, 초대가수 공연과 행운권 추첨으로 3일간의 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부대행사로는 서천무지개분수를 배경으로 한 에어바운스 ‘매돌이 포토존’, 수변무대 버스킹, 한우 시식회, 광양불고기 마그넷 만들기, 숯불구이 테마관 운영, ‘구경구미’ 컬러링 엽서 체험 등 광양의 문화를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에어바운스 매돌이 포토존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봄과 가을, 서천변을 찾는 체험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우승배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는 21회를 맞은 만큼 다채롭고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특히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늘려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만에서 ‘가을 산책’

순천시가 지난 7·8·11일 3일간 진행했던 ‘갯벌단풍 여행 in 남파랑길’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 참가자와 여행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순천시 제공〉

내년 ‘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 지원 협의회 가동

유관기관장·기업인 등 14개월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여수시가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회를 위한 협력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유관기관장, 기업인, 종교계 대표 등 19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약 14개월간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섬박람회지원단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간부 공무원 등 50명이 참석했으며

▲협의회 구성 취지 및 운영 방향 ▲섬박람회 추진 현황 ▲기관별 협력 요청 사항 등을 공유했다.

첫 순서로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이 협의회 운영 방향을 설명했으며 이어 조형근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이 섬박람회 추진 현황과 주요 과제를 보고하며 행사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기관별 협력 요청 사항에 대한 발표와 함께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협력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된 안건은 각 기관·단체 실무진 회의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기명 시장은 “협의회를 더 일찍 운영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각 기관과 단체에서 협력해 준다면 박람회가 반드시 성공 개최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 금오도 등 관내 섬 일원에서 열린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이순신 장군’과 역사 향기 머금은 차 한 잔

24~26일 세계차박람회

보성군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보성읍 열선루 일원에서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와 통합 개최되는 ‘2025. 제13회 보성세계차박람회’를 개최한다.

보성세계차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보성세계차박람회는 녹차 수도의 위상을 알리고 관광과 체험이 하나가 돼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차문화 웰니스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과 보성차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활용해 전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담긴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강화하여 관광객들이 차문화 속에 담긴 철학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는 24일 보성읍사무소에서 열리는 ‘보성차 산업 미래 발전 티 포럼’은 국내 차전문가와 학계 인사가 모여 현재 차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열선루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보성티 각테일 쇼’는 차와 청년 문화가 결합해 보성차를 활용한 화려한 각테일 퍼포먼스와 시음회가 준비되어, 오감을 만족하는 새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AI와 함께하는 보성티 블렌딩 라운지, 말차격 불체험, 이순신 장군차 전시 및 시음, 보성차 행운의 플랫폼 이벤트, 보성티감성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차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보성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의 차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제13회 보성 세계 차 품평대회, 제11회 대한민국 티블렌딩대회, 티 아트 페스티벌, 티 퍼포먼스 등차회가 마련돼 있고 전국 청소년들의 학생 차 예절 경연대회도 펼쳐진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2개 마을 하수도 공사 착수

영남면 우두, 동일면 덕양·구룡 마을 악취·수질오염 개선

고흥군이 영남면 우두, 동일면 덕양·구룡 마을에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 공사를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2027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50톤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 ▲8.8km 오수관 신설 ▲170가구의 배수설비 설치 ▲10개소 중계펌프장 설치 등이다.

군은 사업 착수에 앞서 17일 해당마을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세부추진계획을 안내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 등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하수도 시설이 보급되면 농어촌지역의 미관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시, 단감 탄저병 선제적 방제 ‘효과’

확산 차단·출하율 높여

최근 전남과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단감 탄저병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선제적인 방제약제 지원과 현장 예방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시는 올해 단감 주요 병해충인 돌발해충과 탄저병 방제를 위해 총 4차에 걸쳐 270여 농가에 약 6천만원의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했다. 특히 병해충 사전 방제를 적극 추진해 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조치로 순천시 단감 농가는 탄저병 피해가 인접 시·군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발생 농가도 조기 선별과 수확 전 제거를 통해 병 확산을 차단하고 정상품 출하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최근 단감 후기 낙엽 증상이 일부 과수원에서 관찰됨에 따라, 순천시는 수세 회복을 위한 맞춤형 영양제 공급, 토양 및 물관리, 병해충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사후 관리를 병행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가 단감 탄저병 방지를 위해 농가를 방문해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시 관계자는 “탄저병은 수확기 이후에도 재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수확 후 병든 가지 제거와 토양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